

2 panpan8

백준의 박(현)준

랭킹	42169
맞은 문제	46
시도했지만 맞지 못한 문제	2
제출	60
맞았습니다	48
출력 형식	1
틀렸습니다	8
런타임 에러	1
컴파일 에러	2
학교/회사	동국대학교 42 Seoul



panpan8

Bronze II 129

Bronze I 승급까지 21

동국대학교 42 Seoul

99,701 EXP 15,762위 46문제 해결

프로필 편집

백준 랭킹 42169위, solved.ac 랭킹 15762위.

잠 안 오는 김에 밤새가며 열심히 푼 게 나름 뿌듯해서 올리긴 했지만 사실 제일 쉬운 브론즈 5티어 문제만 풀었고 그조차도 힘겹게 풀었다ㅠ

길어야 3일? 사실상 어제부터? 백준에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하면서 느낀 건

1. 변수 초기화를 잘 하자.
2. C 언어로 큰 수 계산하는 법 공부하자.
3. C 언어는 메모리와 시간이 정말 적게 든다.

당장은 이 정도인 것 같다.

브라우저 창을 왔다갔다 하기 불편하다거나 백준 활동내역 반응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등 이용은 좀 번거롭긴 하지만, solved.ac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즐겁게 문제 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solved.ac가 레벨별 백준 문제와 진행도를 잘 알려주고 CLASS와 레벨 및 랭킹 시스템으로 내 승부욕을 불타오르게 만들어 준 덕분에, 그래도 꽤나 많은 문제 풀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문제 풀이) 진행과 그에 따른 레벨과 경험치 획득이라는 점에서 42 Seoul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좋아서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나는 참 좋다.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는데, 네이버 지식인이나 정보 공유 커뮤니티, 블로그를 비롯해서 엔트리 작품 공유하기, 스
크래치 탐험하기 페이지나 예전 플래시365, 주전자닷컴이 주는 그 신선한 에너지가 좋다.
다만 내가 각 분야의 고인물은 아닌 만큼 그냥 좋게 보이는 것만으로 선불리 판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튼 그렇다.

예전부터 하고 싶은 대로 일 저지르고 다니느라 요새 급격히 할 일이 많아져서, 알고리즘 트레이닝 포함해서 다 이도
저도 아니게 흐지부지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올해는 벌여놓은 일들 다 잘 마무리하고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목표는 실버로!!

+

The image shows a profile for a user named 'panpan8' on a coding platform. The profile includes a blue header with a question mark icon and a '3' badge. Below the header, the username 'panpan8' is displayed with a '0' badge. The profile status is 'Bronze III 114' with a 'Bronze III 승급까지 6' indicator. A progress bar is shown below the status. The location is listed as '동국대학교, 42 Seoul'. The profile also shows '93,941 EXP', '16,187 rank', and '42문제 해결' (42 problems solved). To the right of the profile, the text 'Jul' and '42문제 해결' are visible.

42 EVERYWHERE